

# 야, THE NAVI와 함께라면

너도 영어 기사를 쓸 수 있어.

요즘은 창의 융합적 인재 시대,

현재 2학년 부원 기준 (인문계열):(자연계열)=5:4를 이루는 진정한 문이과 통합 동아리에서 관심 분야를 알아보고 공유하면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되어 보자구.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면,

각자의 진로 분야 및 관심 분야(과학기술, 사회, 자연과학, 경제, 의료, 교육 등)에 맞는 영어 기사를 쓸 수 있어, THE NAVI처럼.

함께 TED 강연을 시청하고 관심 있는 토론 주제로 토론할 수 있어, THE NAVI처럼.

선주배 간 멘토 멘티를 구성해서 기사 피드백 및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어, THE NAVI처럼.

이외에도 원하는 활동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THE NAVI처럼.

Im fine, Thank YOU만 알던 초보들이 생기부까지 채워가면서 영어가 특, 이젠 되니까

너도 진짜 생기부에 필요한 동아리에 지원해, THE NAVI처럼.



<- 작년 한 학기에 한 번씩 전교생에게 배부되었던 THE NAVI 신문 사진. 열정을 가진 그대, 원한다면 당신의 기사도 실릴 수 있습니다.